

사랑을 믿는 당신에게

w. 아네

*

추운 겨울이다. 크리스마스가 이틀 뒤로 다가와, 내일이면 일부를 제외한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시점의 한겨울, 밤이다.

저녁 연회 때부터 시작되었던 눈은 어느새 잦아들어, 얼핏 보면 바람결에 흩날리는 하얀 먼지 부스러기 같다. 바닥에 쌓이기는커녕 옷과 머리에 달라붙어 온통 축축하게 적시는 게 고작일. 세상에 남길 흔적이라고는 기껏해야 말라 사라질 물 자국이 전부일. 그마저도 나 이리 허망하게 가노라고 비명 한 자락 지르지 못할. 그런 눈이다.

여러모로 추하다고. 올무는 생각한다.

내쉬는 숨이 하얗게 얼어붙어 시야를 어지럽힌다. 부연 그 너머로 풍요로운 가을의 밑받이 걸어온다. 저것이 건히면, 그 아래는 드넓은 가을의 하늘이 반짝이고 있으리라. 언뜻 차갑지만, 그 속에 풍요가 있고, 한없이 높고, 청명한.

“늦었네.”

세운이다. 가을의 세상이다.

올무는 입꼬리를 끌어 올린다. 잘 그린 초상화처럼 매끄러운 곡선이 얼굴에 걸린다. 평소 라면, 기다리느라 열어 죽는 줄 알았다고 농담이라도 했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 곧 떠나갈 사람이니.

“왜 보자고 했어?”

세운은 대답 대신, 올무의 옷차림을 아래에서 위로 훑는다. 호그와트 교복이 아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검정 일색인 정장 차림. 목 끝까지 꼭 잠근 단추에서 시선이 멈춘다.

분신처럼 매고 다니던 녹색과 은색의 넥타이 대신 작은 뱀 모양 브로치가 카라를 장식하고 있다. 눈에 박힌 에메랄드는 어둠 속에서도 요요한 빛을 발한다. 우편으로 받았을 때부터 이렇게 못생긴 브로치는 처음 본다며 욕을 짓씹었던 자신이지만, 글썽. 센스 없는 세운이라면 대뜸 예쁘다고 할지도 모르지.

너 같은 뱀 새끼에게 딱이라고.

“안 추워?”

그리고 이어질 비난을 기다리던 올무에게 떨어진 것은 사형 선고였다.

이 날씨에 무슨 목도리도 없이 나와. 바람 불면 날아갈 듯 영성하게 감아놓은 목도리를 풀어내며, 세운이 중얼거린다. 잠깐 상황 인지 능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채 어병하게 서있던 올무의 눈앞으로 붉고 노란 것이 획 움직인다. 움찔, 떨리는 어깨 위로 누군가의 체온이 담뿍 묻은 목도리가 내려앉는다. 낯선 무게감에 올무가 반사적으로 몸을 물리자, 힘주어 끌어당기는 손길에 밟지 않은 타박이 묻어난다.

“옷도 얹으면서.”

성큼 다가온 세운의 얼굴. 뒤통치를 들었는지 시선이 위로 올라와 있다. 그 한 뼘에 올무는 숨이 막힌다. 목도리가 아니라 올가미에 목이 묶인 듯, 움짹달짝하지 못하고 굳는다.

“잘 어울린다.”

하고 배신틈 웃는 얼굴.

아. 이렇게 죽는구나.

이것은 사형선고다. 너는 영영 이렇게 나에게 묶여, 이리 살다 그리 죽는다는 사형선고다. 숨 멎는 그 순간까지도 풀지 못할 매듭이었다. 교수형의 순간, 울무는 마지막 유언을 위해 입을 연다.

“……난 슬리데린인데.”

“빨간색도 잘 어울려. 잘은 모르지만, 파란색하고 노란색도 잘 어울릴 거야.”

“녹색은?”

“글쎄.”

어깨 위로 날아온 눈송이를 털어주는 손길. 목도리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정리해주고, 이윽고 제 작품이 만족스러운 듯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너만큼 안 어울리는 사람 찾기도 힘들지.”

하, 하는 실소와 함께 다시 한번 입김이 퍼져나간다. 그걸 이제야 말해주는 거야? 올해 졸업인데? 울무가 이죽대자 세운은 어깨를 한 번 으쓱하며 대답한다. 그런 걸 어떻게 면전에 대고 말해. 그리고 안 어울린다고 해서 다른 거 입고 다닐 것도 아니잖아. 반장이니까. 그러면서 가만히 맞춰오는 눈동자가 울무의 것에 비쳐 한층 파랗게 빛난다. 초가을의 색. 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 이제 살겠다, 하는 선선한 기운이 느껴질 즈음의 하늘. 방금 제게 교수형을 선고한 자는 그리 청명한 눈으로 말을 잇는다. 그래도 올해면 졸업이니까, 옷장에 다른 색도 좀 채워보라고. 설마 졸업하고도 교복 입을 건 아니지?

“…….”

울무는 대답하지 않는다. 세운도 재촉하지 않는다. 오직 옷 색깔을 논하는 대화만은 아니었으니. 오랜 침묵 후에 울무가 되묻는다. 이러자고 만나자 했어? 얼핏 불어오는 바람에 늘어진 목도리 끝자락이 흔들린다. 세운에게는 허리까지 내려오던 게 제게는 고작해야 가슴팍이다. 분명 막 호그와트에 입학했을 때는 목도리가 줄줄 흘러내려 어느샌가 땅에 끌리고 있었는데. 언제 이리 컸던가. 무얼 먹고 이리 컸던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인가. 가문에 대한 원망인가. 부풀어 오른 거품처럼 이리 거대해진 몸이 문득 낯설다.

언젠가 그것이 전부 폭삭 꺼지게 되면. 나 역시 쪼그라들려나?

세운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크리스마스 잘 보내라고.”

울무는 그땀 것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안에 담긴 저의를 찾는다. 아무리 그래봤자 보이는 거라곤 세운의 눈에 비친, 파르르 떨리는 제 눈동자뿐이다. 아주 애처롭고도 가소롭기 그지 없는 모양새다.

세운은 미련없이 돌아선다. 지금 잡아봤자 잡히지 않는 것을 안다.

“잘 가. 추우니까 그거 꼭 하고 들어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뒷모습에는 후회가 없다.

울무는 가만히 손을 들어 목도리 끝자락을 잡는다. 가볍게 힘주어 당기기만 해도 스르르 풀릴 듯 영성한 매임이다. 제가 둘러켰다면 찬바람 하나 들지 않도록 껍썩 둘러주다 못해 리본까지 묶어줄 텐데. 답답하다고 금방 풀어버릴 것을 알면서도 세상 예쁘게, 선물 포장하듯 그리 정성 들일 텐데. 이리 둘둘 말아놓은 것이 전부인 숨씨가 뭐라고.

뭐라고 이리도……

폭 떨군 고개가 목도리에 파묻힌다. 붉은 털실 짜임이 고스란히 눈에 들어온다. 울무는

울컥 솟아오르는 것을 삼킨다.

말려주길 바라지 않았다면 거짓이다. 볼드모트고 죽음을 먹는 자¹⁾고 납득할 수 없다며 어리석은 짓은 다 관두고 함께 떠나자는 허황된 소리를 해주었으면. 그리 도망가자고 손을 내밀어주었으면. 그런 어리석은 바람이 없었다면 거짓이다. 그러나 역시나 너는 그러지 않았다. 내가 끝내 포기하지 못하리란 걸 알아서가 아니었다. 내가,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설사 죽음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고 해도, 네게 돌아갈 것을 알아서였다. 그리 믿어서였다.

그렇다면 나도 이 믿음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겠지.

울무는 걷기 시작한다. 세운과는 반대편으로, 걸음을 옮긴다. 구두 굽 소리와 함께 저 멀리 아스라이 들려오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함께 메아리친다. 이윽고 세상이 빙빙 돌기 시작한다. 울무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앞으로, 더 앞으로.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흩어지고.

*

……울무는 펜시브 속에서 고개를 들어 올렸다.

*

문신을 받은 건 졸업식이 끝난 직후였다. 우악스러운 손길에 끌려 내동댕이치듯 무릎 꿇린 그곳은 지옥문 앞이었다. 출입허가서는 끔찍한 고통 이후 팔목에 새겨졌다. 이제 정말로 돌아갈 수 없었다. 울무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지팡이를 꺼내 그의 주인에게 바쳤다. 손에 쥐는 순간부터 한 몸이 되었던 지팡이는 충성스럽게도, 비명을 지르며 고집을 부리는 대신 순순히 제 몸을 반으로 부렸다. 어둠의 마왕을 거부한 채로.

볼드모트는 웃었다. 보아라, 나의 수족아. 한 번 정한 주인을 바꿀 바에야 죽음을 택하겠다는 이 굳건한 의지를 좀 보아라.

노래하듯 중얼거리는 언어들 사이로 쫓겨나는 뱀의 말이 뒤섞였다.²⁾ 알아들을 수 없는 그것에 복종한 뱀이 울무의 발목을 휘감았다. 서서히 전해지는 압박감에 울무는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 뼈를 부러트릴 셈이었다. 빠듯하게 차오르는 고통이 오히려 기쁘다는 듯, 울무는 웃었다. 온몸이 예민하게 달아올라 갈비뼈 속 심장이 뛰는 감각마저 선명했다. 고통으로 어지럽게 흔들리는 시야 사이로 뱀처럼 찢어진 동공을 정확하게 응시했다. 그 속에 담긴 회열과 의심을 읽어내고, 올바른 답을 내뱉었다. 발목 대신 손목을 부수십시오. 다시는 지팡이를 잡을 수 없도록. 그리하여 감히 주인에게 배신의 화살을 돌릴 수 없도록.

이어지는 웃음소리. 한계까지 버티던 발목에서 뱀이 몸을 풀었다. 육신대는 통증을 참으며 울무는 고개를 숙였다. 한 방울의 땀이 머리카락을 타고 뚝, 떨어져 내렸다.

다음 날로 울무는 새 지팡이를 하사받았다. 첫 임무와 함께였다. 예언자 일보의 잡종 기

1) 원문은 death eater. 볼드모트의 추종자. 충성의 의미로 팔목에 해골 모양 문신을 새기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볼드모트의 호출을 느낄 수 있다.

2) 볼드모트는 뱀의 말을 구사한다. 슬리데린의 창립자인 살라자르 슬리데린의 직계 후손이기 때문이다.

자를 잡아 오라는 말에 울무는 순순히 복종했다. 으스스한 어둠을 틈타 기절 주문을 날리고, 어둠의 마왕 앞으로 끌고 와 그이의 울부짖음이 흐느낌으로, 가냘픈 숨소리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다가 손수 지하 감옥으로 던져넣었다.

보기 좋게 성공한 울무에게는 포상이 내려졌다. 어느 잡종의 죽음을 코앞에서 직관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그것이었다.

고통에 바르작대는 몸뚱아리가 그리도 무력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마침내 벗어버린 심장과 천천히 빛을 잃어가던 눈동자. 첫 살인을 목격한 날 울무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속을 게워냈다. 세면대를 쥔 채 거울 속 온통 엉망인 얼굴을 들여다보던 울무는 처음으로, 기억을 뽑아냈다.³⁾ 화창한 9월, 진홍색 증기기관차에 올라타 가을의 세상을 처음 마주한 날이었다. 호그와트에 열세 번쨰 도착하니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두 번째 살인을 목격한 날은 사흘 뒤였다. 울무는 높은 스тол 위에 걸터앉은 누군가의 밑빛 머리칼 위로 먼지투성이 모자가 꼭 내려앉던 기억을 뽑아냈다. 그리핀도르! 외치는 목소리에 딱 걸맞게도 모자를 벗자마자 머리를 탈탈 털어내는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어렸다. 제 허리까지밖에 오지 않는 키에 울무는 신기함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저 짧은 다리로 걸어다니는 거지. 누가 들었다면 나 그래도 평균 이상이었거든, 하고 발끈했을 법한 발언이었다.

세 번째 기억은 길고 널따란 단상 위에 올라가 영성하니 전투 자세를 취한 모습이였다. 작고 말랑한 손이 제법 단단하게 지팡이를 쥐고 있어 본격적으로 겨루기도 전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공방을 주고받으니 훨씬 기대 이상이었다. 정세운이라고 했다. 기억 속 자신이 중얼거리자, 앞선 장면들에서 흐릿하니 형체만 남아있던 얼굴이 한층 선명해졌다. 단상을 내려가던 세운이 발걸음을 우뚝 멈춘 채 저를 돌아보고 있었다. 울무는 그 어린 낫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보송한 숨털이나 채 빠지지 못한 젖살 따위가 한층 동그스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제법 충격적인 귀여움이었다. 그리핀도르치고 나쁘지 않은 실력이네. 그에 비해 참으로 못난 제 목소리가 반대편에서 들려왔다. 뭐? 하고 짜증 섞인 응답이 돌아가고, 동시에 다시 단상 위로 성큼 올라서는 세운을 주변에서 뜯어말리는 것이 꼭 한 편의 잘 짜인 희극을 보는 양 우스웠다. 울무는 킬킬대며 단상 한가운데 자리 잡고 앉아버렸다. 억지로 끌려 내려가는 세운을 끝으로 정적이 다가오고, 이내 세상이 한 번 무너졌다가, 다시 건축되고, 소란스러운 웅성거림과 함께 다시 단상 위로 올라오는 세운이 이어졌다. 그렇게 몇 번이나.

네 번째는…… 언제더라. 정확한 기억도 나지 않았다. 다만 꽤 심각한 부상을 당한 날이었던 것 같다고, 울무는 추측할 뿐이었다. 거의 완팔이 날아갈 뻔했지. 그 때문에 새겨진 흉터에서는 아직도 환상통 같은 것이 올라오곤 했다. 봉대 위로 선홍빛이 언뜻 비치는 채로 펜시브 속으로 몸을 던져,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도망쳤더랬다. 그렇게 펜시브의 물소리가 아련하게 흠어나 싶더니 눈앞을 종이학 한 마리가 날았다. 팔랑팔랑 가볍게 허공을 가로질러 세운의 머리 위로 툭 떨어진 그것은 이내 생명력을 잃고 축 늘어졌다. 종이학을 손에 쥔 채 저를 돌아보며 뭐냐고 입을 병긋거리는 세운의 얼굴에는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어, 그 당시의 저는 묘하게 실망한 마음을 숨긴 채 빙글빙글 웃는 수밖에 없었다. 바보같이. 울무는 동그스름한 어린 제 뒤통수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세운에게 그런 걸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는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후였지만, 어린 시절에는 그 때문에 삼질도 여러 번 했었지. 당장 지금도 온통 복잡해 보이는 얼굴이 된 채 손을 꼬지락대고 있

3) 앞서 언급된 펜시브란 금속이나 돌로 만들어진 대야로, 항상 물이 차 있다. 하얗게 빛나는 실 모양으로 기억을 뽑아낸 후 펜시브 안에 넣으면 3인칭으로 기억을 되돌아볼 수 있다.

지 않은가. 내일만 되어도 세운이 저만 보면 새빨갳게 달아올라 도망 다닐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한 채. 그럼 저는 그 뒤를 쫓아가며 왜 자꾸 피해 다녀? 하고 호그와트 곳곳을 누빌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한 채. 그러다가 발을 헛디딘 세운과 함께 넘어져 몸이 겹쳐지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고, 순간 전해지는 심장 박동이 너나 할 것 없이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고 있어 시선도 마주하지 못한 채 둘 다 별정계 달아올를 거라고는, 정녕 조금도 모른 채로.

거기까지 봤을 때, 울무는 더 이상 기억을 꺼내지 않기로 했다. 과거에 미련이 남으면 나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운 법이다. 울무는 반복되는 기억 속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기실, 펜시브 속에서 허우적대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아주 힘든 밤에만 잠 대신 추억을 꿈꾸며 새벽을 맞이하던 것에서, 이제는 그저 아주 잠깐의 틈이라도 있다면 저를 찾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언제까지고 머물렀다. 한 번은 바깥의 소리조차 듣지 못해 펜시브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올 뻔한 순간도 있었다. 곧장 오클러먼시로 방어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걸 보이고 말았겠지. 그 뒤로 울무는 펜시브를 벽장 깊은 곳에 넣고 잠가버렸다. 그가 정말로 돌아가야 할 곳은 멈춰버린 과거가 아니라 존재하는 현실이었다. 현실 속 세운이었다.

그렇게 홀독하게 몰아붙였다. 어둠의 마왕은 비실대던 수족이 한층 독해졌음을 깨닫고 무척 만족스러워했다. 더 강도 높은 임무가 주어지고 더 비밀스러운 정보가 들어왔다. 울무는 꼼꼼히 기억하고 기록하여 모두 서류로 남겼다. 죽음을 먹는 자들끼리 의미 없이 주고받는 한 줄의 대화조차도 언젠가 자신의 무기가 되리란 걸 알았다. 모을 수 있는 건 모조리 모아서, 쌓고, 쌓고, 쌓아서, 아주 작은 반격의 불씨를 화마로 키워내리라. 이제 몇 번째인지도 모를 죽음의 저주가 눈앞에서 번쩍이는 것을 보며, 울무는 그렇게 짓씹었다.

그러나. 조금의 인간성도 없이 오로지 폭력과 증오와 광기만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는. 단단하게 쌓아 올린 다짐조차 어쩔 수 없이 순식간에 무너질 때가 있어서.

바닥에 엎어져 숨 쉬는 것조차 힘들던 날. 울무는 제 머리에 살인저주를 쏘는 대신 깊이 묻어둔 기억을 꺼냈다. 칼바람이 불어닥치는 퀴디치 경기장. 빗자루 위에 올라탄 작은 몸. 한없이 자유로워 보이는 얼굴. 불규칙적으로 휘날리는 옷자락. 순식간에 거머쥔 승리. 터져 나오는 웃음과 탄성. 그 속에서 오로지 너에게만 바치던 박수. 마주 엮히던 시선. 또는, 반장의 권한을 방패로 밤마다 함께 걷던 복도. 슬며시 잡아 오던 손. 붉어진 귀 끝. 긴장하여 혈کم대는 눈. 가까워지는 몸. 꼭 감겨 파르르 떨리는 속눈썹. 혹 풍기는 향기. 터질 듯 뛰는 심장. 맞붙는 입술.

혹은, 제 목도리를 둘러주며 붉은색도 잘 어울린다고 속삭이던 목소리 같은…….

그러면 다시 두 발 딛고 일어설 힘이 생겨서.

울무는 제 삶을 세운으로 채웠다.

*

졸업과 동시에 울무는 연락이 끊겼다. 뽕뽕한 소리를 굳이 제 귀까지 옮겨오는 이들에게, 세운은 명칭이들, 하고 짧은 감상평을 남겨주었다. 아주 한가해 보이는데 그럴 시간에 불사조 기사단⁴⁾ 입단 신청서나 작성하는 게 어떻냐는 충고까지 덧붙이면 아주 불 만한 표정들을 지었다. 딱 봐도 뻔하지. 그 능글맞은 슬리데린 놈이랑 붙어 다니더니 배신당한 기분이

4) 원문은 the order of the phoenix. 볼드모트와 대항하기 위해 알버스 덤블도어가 조직한 단체.

어떻냐. 뭐 그런 반응을 원한 거겠지. 안타깝게도 세운은 그 알뜰한 수에 놀아날 마음이 반
푼어치도 없었다.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평생의 목표를 향해 가장 힘든 마지막 한
발짝을 딛고 있는 이에게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세운은 그 어떤 소문도 신경 쓰지 않았다. 정말로.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입을 닫
은 채 묵묵히 할 일을 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삶은 이어졌다. 언젠가 울무가 모든
것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함께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끝마쳐 놓는 게 좋을 듯했다. 물
론 울무라면 동거니 뭐니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으며 몸만 들어와 살라고 하겠지만. 그러
다 문득, 그것이 프리포즈와 다를 바 없음을 깨닫고 세운이 깃펜을 떨어트렸다.

세상에.

애 돌아오자마자 프리포즈 하는 거 아니야?

상당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였다. 세운이 호그와트 생활 7년에 걸쳐 바라본 울무는 상상
이상으로 또라이 같은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프리포즈 정도는 그간의 행적에 비하
면 아무것도 아닌 축에 속했다.

세운은 확 달아오른 얼굴에 손으로 부채질하며 깃펜을 주웠다. 개 성격에 평범한 프리포
즈는 안 할 것 같은데. 설마 깜짝 이벤트랍시고 관중 앞에서 무릎 꿇고 어찌고 하는 건 아
니겠지.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찔했다. 그러다가도 저를 보며 활짝 웃을 얼굴을 떠올려보면,
음. 나쁘지 않을지도. 어차피 거절은 고려의 대상도 아니었다. 프리포즈 형식이 어떻게 되든
간에 세운에게는 하나의 답만 존재했다.

그러니 돌아오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그 어떤 이상한 프리포즈가 눈앞에서 펼쳐
져도 네게 받는 것이라면, 다 괜찮을 거라고. 순순히 승낙해주겠다고. 그러니 정말로 내 눈
앞에, 돌아오라고. 무사히. 살아서. 부디 살아서.

그렇게 빌었는데.

지팡이를 강하게 내리치며 목을 찢어 외쳤다. 프로테고! 푸른빛 투명한 방어막 위로 새빨
간 저주가 날아와 부딪히며 강한 충격이 전해졌다. 사방으로 휘날리는 머리카락에 시야가
형클어졌다. 그 사이로 언뜻 노란 불빛 하나가 비친 것을 목격하자마자 세운은 다시 손목을
휘두르며 주문의 단어를 내질렀다. 굉음과 함께 저주 두 개가 동시에 방어막을 들이받았다.
바스라진 보호 마법이 고스란히 시전자에게 돌아오는 타격에 세운이 인상을 썼다. 아까부터
쌓인 내상 때문에 손이 흔들리고 있었다. 무언 주문을 쓴다면 훨씬 위력이 강할 텐데. 그럴
만한 정신은 애초부터 남아있지 않았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품 안에 쓰러진 울무를 단단히 안으며 세운이 다시 방어막을 펼쳤다. 속에서 기침이 올라
오는 것을 꿀꺽 삼키며 일부러 숨을 참고 집중력을 끌어올렸다. 순간이동을 해야 하는데,
주문이 쉴 새 없이 날아들어 도저히 틈이 보이질 않았다. 순간이동과 동시에 저주를 맞는
것만큼 최악도 없는데.⁵⁾

대체 어찌다 일이 이렇게 된 건지. 한 걸음 제게로 다가오는 이를 향해 저주를 던지듯 맞
춘 세운은 이를 악물었다. 다이애건 엘리에 나왔을 뿐이었다. 유난히 어수선한 분위기에 얼
른 불일만 끝내고 들어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머리 위로 무언가가 떨어졌다. 익숙한 색
깔이 눈앞에서 휘날리기에 반사적으로 감싸 안았는데, 받고 보니……

황! 상대 쪽 저주와 세운의 저주가 부딪히며 충격파가 사방으로 불어닥쳤다. 날카로운 바
람에 불이 베일 듯 아팠다.

5) 하나의 지팡이로 동시에 마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순간이동을 하면서 저주를 막기는 불가능하다.

……하늘에서 떨어진 찬란한 금발에는 온통 피가 범벅이었다. 숨은 붙어있었으나 정신을 잃은 채였다. 머리가 깨진 건지 얼굴로 뚝뚝 떨어지는 핏줄기를 보고 경악함과 동시에, 주문이 날아왔다. 마찬가지로 피투성이가 된 남자 여럿이 씩씩대며 이쪽을 향해 지팡이를 겨누고 있었다. 한바탕 전투가 있었는지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팔뚝에 해골 문신이 선명했다. 직감했다. 내란이구나.

소식 하나 없음을 오히려 기뻐했다. 혹여나 그것이 부고일까 봐. 부디 영영 연락이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때도 있었다. 그저 어느 날 눈앞에 마법처럼 나타나길 바랐다. 그런데 이게 뭐야.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준비하고 있을 때 너는 죽어가고 있었다.

무언가 속에서 툭 끊어지는 감각과 함께 세운은 지팡이를 휘둘렀다. 속에서 천불이 들끓었다. 바보 같으니라고. 이렇게 되기 전에 진작 피했어야지. 이러면 널 믿고 가만히 기다린 내가 뭐가 돼. 그냥 손 놓고 기다린 내가 뭐가 되냐고. 너는 옛날부터 그랬지. 사람을 살살 굶어서 미치게 만드는 못된 버릇이 있었지. 그러고는 또 예쁘다 예쁘다 달래줘서 화내지도 못하고 빠친 척 넘어가고.

내가 버릇을 잘못 들었어. 세운이 짓씹는 순간.

“그래, 아주 단단히 잘못 들었지…….”

귀를 의심하게 하는 목소리. 잠깐 한눈판 틈을 한 놈이 귀신같이 파고들었다. 앞뒤 젤 것도 없이 품속 몸부터 감싸며 팔 하나는 내어주어야겠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다치자마자 호오, 해달라고 너한테 먼저 달려왔잖아.”

환한 빛이 튀었다. 가슴팍에 기대어 놓았던 몸이 부스스 일어났다. 처음 보는 지팡이로 다시 날아오는 저주 하나를 쳐내고, 이쪽을 돌아보는 표정이 무척.

“짜증나.”

기꺼워서.

세운은 뜨거워진 눈시울을 벽벽 문질러 닦았다. 곱게 휘어지는 녹색 눈동자에는 여전히 짜증 한 자락 낼 수 없었다.

“오랜만이야.”

“그걸 알면서 그 꼴로 나타나?”

미처 닦아내지 못한 감정이 날카롭게 튀어 나갔다. 울무가 하하, 소리 내어 웃더니 꼴이 심각하긴 하지? 하고 되지도 않는 농을 시도했다. 절로 세운의 눈이 뽀죽해졌다. 말이라고. 자연스럽게 울무와 등을 붙이고 서서, 지팡이를 다시 들었다. 가볍게 휘둘러 머리에 봉대를 감아주고 상태를 살폈다. 안색이 파리한 게 영 좋지 않았다. 당장이라도 들쳐업고 성 뭉고 병원⁶⁾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지금 잡아봤자 잡히지 않는 것을 안다.

세운은 입 안쪽을 세게 짓씹었다. 살아있으니 됐다. 죽어오지 않았으니 됐다. 정신을 가다듬으며 주변을 살폈다. 울무가 움직이면서부터 저쪽의 사기가 팍 꺾였다. 나름 실력자라고 입지를 다져놓았나 보네. 슬쩍 적들의 눈치를 보며 세운이 속삭였다.

“재네 너랑 같은 편 아니야?”

“어, 아니야.”

그런 말을 웃으면서 하는 걸 보니 살 만한가 보네. 실소가 흘러나오며, 세운은 슬쩍 지팡이를 잡지 않은 손으로 울무의 재킷 끝자락을 쥐었다. 요동치던 심장이 가라앉으며,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누군가의 숨소리가 그제야 들려왔다. 살아있다. 그것 하나만으로 세운은 모

6) 해리포터 작중 마법 세계 최고의 병원.

든 걸 용서할 수 있었다.

“왜, 추워? 벗어줘?”

“환자한테 보살핌 받을 정도는 아니야.”

홀쩍. 새어나오는 울음을 다시 삼키며. 세운은 유난히 비틀대는 놈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는지 중심축이 비뚤었다. 머릿속으로 바쁘게 지금 사용할 만한 주문들을 즉 복기하며, 세운이 속삭였다.

“갈 때 인사하고 가.”

등 뒤에서 느껴지던 울무의 숨이 잠깐 멎었다. 세운은 돌아보지 않았다.

동시에 지팡이 끝에서 불빛이 쏘아졌다. 단말마와 함께 하나가 쓰러지고, 전투가 이어졌다. 명백히 기운 승세였다. 계속 싸우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은 놈들은 술술 꼬리를 빼기 시작했고, 이윽고 순간이동으로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당장 쫓아갈 듯 지팡이를 휘두르려던 울무가 멈칫, 하고 세운을 돌아보았다. 인사하고 가라는 말은 기억하나 보네.

세운은 망설이지 않았다.

“나도 사랑해.”

“.....뭐?”

“미리 대답하는 거야.”

저렇게 당황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세운은 웃었고, 울무는 잠깐 망설이나 싶더니 이내 재킷을 벗어 세운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피 냄새와 먼지 냄새가 혹 끼쳤다.

“잘 어울린다.”

그리고 다정하게 미소하는 얼굴에는. 한 치의 거짓도 없어서.

마침내 울무마저도 순간이동으로 사라진 후에야 세운은 더운 숨을 길게 흘려보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네 앞에서 안 울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지 알까. 불규칙한 호흡으로 어깨가 덜덜 떨렸다. 추워서 이러는 거야. 홀쩍이며 재킷의 목깃 부분을 잡고 여미는 손길에, 무언가 두툼한 것이 걸렸다. 목깃 바로 아래 위치한 안주머니가 이상하리만치 부피감을 자랑하고 있었다. 뭐가 들어있나 싶어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는데, 도무지 재킷 안감이라고는 할 수 없는 촉감이 느껴졌다. 세운은 안주머니를 뒤집었다.

그리고는,

“.....”

어쩔 수 없는 웃음.

“미리 대답해줘서 다행이다, 그치.”

붉은 니트 조각. 세운의 호그와트 7년을 물들였던 바로 그 색. 언젠가 울무에게 돌려주었던, 그리핀도르 목도리의 색이었다.

얼마나 만지작거렸으면 이렇게 다 해졌을까. 수없이 더듬었을 누군가의 손길을 떠올리며, 세운은 가만가만 그것을 쓸어내렸다. 직접 안쪽에 붙이기라도 한 건지. 안감과 연결해둔 솜씨가 상당히 영성했다. 실이 풀렸는지 짜임새가 이상하게 뒤틀린 부분도 있었다. 마법을 쓰거나 집요정⁷⁾에게 부탁해도 됐을 텐데. 미련하게 또 네 손으로 직접 하기라도 한 건지. 정말 너는. 한결같다. 또 나를 이렇게 달래는 것을 보니.

7) 인간에게 봉사하고 집안일을 하는 생물체로, 순수혈통 가문의 저택이나 호그와트에서 많이 발견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도비.

*

피와 먼지에 찌든 재킷은 세탁하고, 꼼꼼히 다림질하여, 곱게 벽에 걸어두었다. 오며 가며 볼 수 있게. 종종 네 냄새가 아직 남아있나 코를 킁킁거렸다가. 뭐 이런 짓을 하고 있나 싶어 귀를 붉혔다가. 언젠가 네가 다시 입을 날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어깨 위 쌓인 먼지를 털어냈다가. 어서 내 옆으로 돌아오라고, 이 바보야. 그렇게 중얼거렸다가. 보고 싶다고 괜히 얼굴을 파묻고 징징거렸다가. 아침마다 배달되는 예언자일보 사상자 명단에서 몇 명의 ‘unknown’ 을 발견하고 울음을 삼키며 끌어안았다가. 율하에게 네 소식을 묻는 편지를 쓰고도 보내지 못하고 찢어버린 채 소매에 매달렸다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너를 돌봤다.

그리고 그날.

아주 눈이 많이 오던 날.

마침내 어둠의 마왕이 스러진 날. 그리하여 모두가 축배를 들던 날. 거리가 밤늦도록 기쁨에 벅차올라 소란스럽던 날. 그 속에서 오직 나만이 고요를 지키던 날.

폭설을 뚫고 날아온 부엉이의 머리에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다. 율하의 편지였다. 내용은 간단했다. 너의 집 주소였다. 그리고 금색 열쇠 하나도 함께. 날아온 부엉이를 따라 빗자루를 탈까 고민하다가 지팡이를 잡았다. 눈을 잔뜩 맞아 졸짝 젖은 채로 너와 재회하고 싶진 않았다. 물론 이 날씨에 빗자루를 타고 왔다고 하면 너는 아주 졸도할 정도로 웃으며 좋아하겠지만.

지팡이는 아주 쉽게 너의 집 앞까지 나를 데려다주었다. 말로만 듣던 대저택이었다. 고요히 떨어지는 눈송이가 온통 어두침침한 색깔로 뒤덮인 저택의 외관을 제법 화사하게 꾸며주고 있었다. 나는 손잡이를 잡고, 두 번 노크했다. 텅텅. 단단한 나무문에 금속 손잡이가 부딪치며 커다란 메아리가 울렸다.

그 너머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뚜벅뚜벅,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그것은 내가 익히 알던 그 보폭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호그와트 복도를 긴 다리로 헤집고 다니던 모습을 어렵풋하게 떠올리려던 찰나.

문이 열렸다.

“어때, 마음에 들어?”

등 뒤로 따뜻한 빛이 쏟아져, 백금발에 가까운 네 머리는 거의 진한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깔끔하게 손질한 앞머리 아래로는 익히 알고 있는 색이 반짝였다. 한여름날 뜨거운 햇살 아래 찬란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녹음 같다가도, 초봄의 서늘함을 이겨내고 삶에 대한 의지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새싹처럼 부드럽게 빛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스러운 네가. 눈앞에서. 웃고 있었다. 팔을 뻗었다.

순순히 다가오는 몸 위로 두르고, 힘껏 껴안았다. 생생한 온기가 옷 너머로 전해지며 가슴이 빠듯하게 부풀어 올랐다. 너와 맞닿은 모든 부분에서 참을 수 없는 행복이 느껴졌다.

황홀했다.

“응, 마음에 쏙 들어.”

다른 대답은 이미 너에게 넘긴 지 오래였으니. 이번에는 그 한 마디로도 충분했다.